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7월 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김도균 전력산업과장(2110-4897), 박정미 사무관(2110-4898)	

"전력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" 발족
-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마련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최중경)는 우리 전력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**해외시장 개척**을 위해 **유관 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**하고 **정부의 지원책을 본격 추진**키로 함

○ **'11.7.5(화) 지식경제부 김정관 제2차관**은 전력공기업, 중공업 및 건설사, 수출금융,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**제1차 "전력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"를 개최**하여 이와 같은 전력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함

□ 국내 전력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, **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력시장으로의 진출**은 국내 전력기업들의 **새로운 수익모델 창출**과 **관련 기자재 수출증대** 측면에서 **매우 중요**

* 2015년까지 전력수요 증가전망 (IEA) : 개도국 아시아(6.7%), 중동(4.7%), 아프리카(3.8%), 남미(3.7%)

○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우수성은 **UAE 원전수출**을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, **높아진 우리 전력산업의 Brand 가치**를 이제 **화력발전, 신재생에너지, 송배전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로** 이어나가야 할 시점임

□ 그간 **한전 및 발전사**들은 국내에서 축적된 발전소 건설·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, 중남미 등지로 **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**해 왔으며, 성공 사례도 축적되어 **진출 잠재력은 매우 큼**

* '10년말 기준 운영·건설 중인 해외발전(원자력 제외) 프로젝트 총 18개
* (성공사례) 필리핀 말라야 중유발전('95), 일리한 가스복합 프로젝트('99) 등

○ 그러나, **개도국의 높은 정치적·제도적 리스크**로 인해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**고도의 전문성, 다양한 사업 주체간 긴밀한 협력**과 함께 **정부의 적극적 지원**이 절실한 상황임

□ **金차관은** 최근 급증하는 **개도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**는 우리기업들에게 **새로운 성장 활력**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하고,

○ 오늘 발족한 민관 협의회가 **해외진출 활성화의 구심점**이 될 것이며, 정부는 우리 전력산업의 **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**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밝힘

□ 지경부는 **"전력산업 해외진출 정책 지원방향"** 발표를 통해 추진체계, 정보, 마케팅, R&D 등 **각 부문별 정책 지원방향**을 밝힘

① **(추진체계)**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**발전사 협력본부에 "전력산업 해외진출 지원사무국"**을 설치·운영하고, 협의회 참여 실무진 중심의 **전력산업 해외진출 연구포럼**을 구성·운영

② **(정보시스템)** 주요국별 전력시장 제도, 우리기업 진출 현황, 해외입찰 정보제공 등을 위한 **Web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**

③ **(마케팅) 우리 기업들의 해외사업 추진 단계별**(사업개발, 인적교류, 타당성 조사, 시범사업) **맞춤형 지원전략** 추진

④ **(기술경쟁력)** 대형 가스터빈과 같은 **핵심기술 국산화**를 위한 대형 R&D 프로젝트 추진

□ 향후 **정례적 민관협의회 운영**으로 전력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**관련 기관간 Synergy 창출**과 함께 **현장감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행**될 것으로 기대됨

참고1 전력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 개최(안)

1. 행사 개요

□ 일시 : '11. 7. 5(火) 11:20~13:30

□ 장소 : 파크하얏트 호텔 3층 보드룸

□ 목적 : 전력산업 해외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검토·지원하는 협의 채널 발족

☞ 관련 기관의 역량 결집 및 업계 애로사항 해결

□ 참석자 : 지경부 및 총 19개 기관 참석

구 분	참석 기관
지경부	제2차관(주재), 전력산업과장
전력공기업(8)	한전, 발전 5사, 한국전력기술, 발전사협력본부
중공업(4)	두산중공업, 현대중공업, 대우건설, 현대건설
수출금융(3)	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, 산업은행
관련기관(4)	KOTRA, 플랜트산업협회, 전기산업진흥회, 전기공사협회

2. 진행 순서

구 분	시 간	내 용	비고
간담회	11:20~11:30	차관 인사말씀	
	11:30~11:50	한전, 발전 5사 주요 관심 프로젝트 발표	한전 발전사
	11:50~12:10	기타 기관의 사업계획 및 건의사항 발표	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수출입은행 KOTRA
	12:10~12:20	해외진출 활성화 정책방향	전력산업과장
	12:20~12:40	종합 토론	
오 찬	12:40~13:30	자유 토론	

참고2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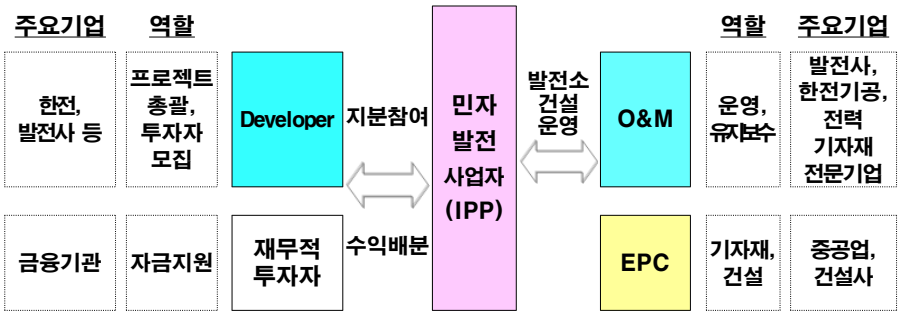
1. 발전 부문

□ 발전 부문 해외진출은 ①**Developer*를 통한 사업 수주** ⇒ ②**EPC 기업들의 기자재 및 건설 부문 참여** ⇒ ③**O&M(유지보수) 시장 참여** 등의 **Value Chain을 형성**

* 사업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, 중앙(지방) 정부와의 장기운영(IPP) 계약을 통해 전력판매를 통한 투자이익 환수

○ **해외 발전사업 수주**는 국내의 **전력 기자재, 건설 관련 대중소 기업들의 막대한 후속 수출 유발효과**를 발생시키며, 유지보수를 위해 **30년 이상의 After Market**(전력기자재 + 서비스)**을 발생**

〈 해외 민자발전사업 참여주체와 역할 분담 〉



2. 송배전 부문

□ 송배전 서비스 분야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**한전은 신흥국 송전선로 구축, 배전망 현대화 사업 국제입찰 참여**를 적극 추진

* '10년말 기준, 이집트 배전자동화 시스템구축 등 운영사업(10건), 개발사업(22건) 등 총 32개 프로젝트

○ 사업 수주이후 **전선, 변압기, 개폐기, 제어기** 등 **관련 부품의 대부분을 국내 전문기업을 통해 조달**